

# 한국의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

최 병 두\*

우리나라에서 사회·인구지리학은 다른 전공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면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누적시키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공간적 문제들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현대 지리학의 성립이후 사회·인구지리학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인구지리학의 일반적 개념 및 주요 주제들과 그 발달과정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연구동향을 몇 가지 주요 주제, 즉 연구방법론, 도시화와 도시인구현상, 인구이동과 농촌사회생활의 변화, 거주지분화와 도시재개발, 도시사회생활과 지역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인구지리학의 발전전망과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고 있다.

주요어: 사회지리학, 인구지리학, 인구현상, 농촌 및 도시 사회생활, 거주지분화, 지역사회복지

## 1. 사회·인구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주제

지리학의 여러 전공 영역들 중에서 사회·인구지리학은 비교적 늦게 발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다른 전공분야들과 더불어 주요한 전공영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에 관한 논의를 위해 우선 이 학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규정과 포괄하는 연구주제들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모든 학문은 그 발달과정에서 규정되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 연구주제들도 바뀌거나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동태적인 사회·인구현상들을 연구하는 사회·인구지리학의 경우, 연구대상 자체의 변화로 인해 그 개념과 연구주제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연구대상을 인식하고 고찰하는 방법, 즉 연구방법론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연구주제들도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인구지리학의 기본개념과 공통된 주제들을 우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주제는 비교적 쉽게 규정될 수 있다. 즉 “인구지리학은 인구의 여러 가지 현상을 공간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희연, 1986.11). 이러한 인구지리학은 지리공간상에서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과 관련시켜 인구분포, 인구구성, 인구이동, 인구성장 등의 다양한 패턴과 이러한 인구현상들의 동태적 측면 및 그 주변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Clarke, 1965; 이희연, 1986.15). 즉 인구지리학은 “인구의 분포와 밀도, 인구의 성장과 변천,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인가와 자원, 인가와 환경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이희연, 1986.17)(그림 1 참조).

이러한 인구지리학에 비해, 사회지리학은 훨씬 정의되기 어렵다. 사회지리학이라는 용어는 근대 지리학의 성립시기에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달(Vidal de la Blache)의 인문지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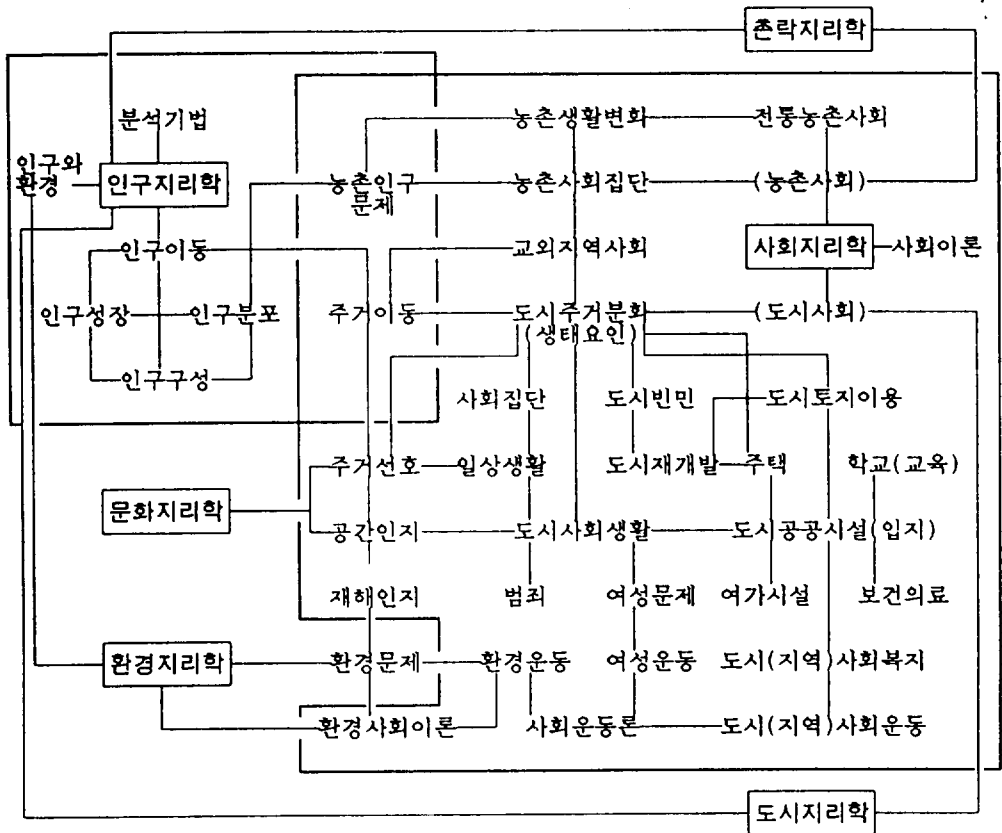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인구지리학의 주요 주제들

학 또는 라첼(Ratzel)의 인류지리학 등과 동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었다(Jones & Eyles, 1977.4; 예경희, 1994.2). 서구 지리학의 발달사에서 사회지리학이 독립된 전공분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회지리학의 개념은 시대적 배경 및 연구자들에 연구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정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일단 제쳐놓기 위해, 우리는 사회지리학을 “사회적(현상과) 과정의 공간적 함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Jones & Eyles, 1977.1).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동안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영역내에서 다루어졌던 연구주제들을 나열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러나 사회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사회적 현상과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 발달과정에서 볼 때 아직 연구주제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어떤 전공분야들 보다도 더 많다는 점에서, 연구주제들의 범위를 한정하기 보다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림 1은 우리나라 지리학계의 사회·인구지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연구주제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복잡한 관계 및 다른 전공영역들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들은 크게 농촌사회와 도시사회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도시사회에서의 공간적 현상들, 예로 도시주거분화, 도시공공시설의 입지, 도시사회생활 또는 도시사회문제의 공간적 측면들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빠져있는 주제들과 다른 전공영역들과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제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을 개관하고 세

분된 연구주제들에 따라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 다음 그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 개관

다른 전공영역들에 비해 사회·인구지리학은 서구 지리학의 발달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도 상당히 늦게 형성되었다. 이 점은 이회연의 <인구지리학>(1986.3) 머리말에서, “인구지리학의 발달은 다른 계통지리학의 발달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지리학적 관점에서 인구현상에 관하여 이루어진 체계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인구지리학에 관한 학문적인 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형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구지리학은 해방이후 현대지리학의 성립과정, 즉 지지적 서술방식에서 벗어나서 계통지리적 연구로 전환해 가는 과정의 초기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구지리학분야의 연구논문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리학의 본격적 발달은 이 보다는 훨씬 늦은 1970년대 후반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회지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이한순(1963. 69)은 ‘남한도시인구의 팽창과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종래의 환경론 내지 경관론에 치중하던 지리학의 입장에서 근래 새로운 방향인 성격 기능 및 구조에 치중하는 조류에 따라 표제를 다루어 보려한다”고 서술하고, 이의 주(註)로서 일본에서 출판된 사회지리학 전공문헌들을 명시하고 있다.<sup>1)</sup> 또한 박노식, 조동규(1961)의 <향토지리조사법>에 대한 서평에서 강대현(1963)은 이 책에서 제시된 “F. Le Play 학파의 사회분석목록...은 지리조사에도 많은 참고가 되겠지만, 지역사회의 실태와 과제를 조사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도시 및 농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즉 사회지리학의 기본은 이미 1960년대 초에 의도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도입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회지리학적 관점이나 조사방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사회지리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담은 논문들이 제시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였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지리학을 표방한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리학내에서 사회지리학의 위상은 아직 명확히 설정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인문지리학 안에서의 사회지리학의 위치에 대하여도 한 동안은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서술이나 (박동원, 1978. 25), 또는 “사회지리학이 하나의 새로운 연구분야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인문지리학의 연구영역내에서 사회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냐는 아직 잘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진술(류우익, 1978. 59)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사회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주제의 범위는 현재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이후 사회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관련분야의 연구성과들이 크게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지리학은 이제 지리학내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인구지리학의 이러한 발달과정을 배경으로, 인구지리학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연구주제들을 시기별로 살펴 볼 수 있다(표 1 참조). 1950년대 인구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는 (세계)인구이동 및 도시인구성장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어 1960년대에는 도시기능과 인구구성, 도시화와 인구현상뿐 아니라 토지이용과 인구간 관계, 인구증감, 인구이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인구에 관한 분석은 서술적 차원을 넘어서 밀도 분석, 회귀분석, 다변수분석과 같은 계량분석방법을 응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 말 이후 연구주제들이 보다 세분되어 대도시의 인구구조변화, 내부 주거이동, 인구이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교외화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세련된 인구분석기법들과 원격탐사 및 컴퓨터의 활용을 소개하거나 또는 인구이동모형을 응용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외지역에서의 인구분포나 보다 특정한 시기의

표 1. 사회, 인구지리학의 주요 주제들의 도입 시기

시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주요주제	인구지리	· 세계인구분포 · 도시인구구성	· 인구가동 · 인구-토지이용	· 도시밀도분석 · 인구관련 회귀분석 · 도시인구성장	· 주거이동 · 농촌인구문제	(기존주제 유지)  · 해외인구분포 · 생애주기가동
	사회지리	(사회지리학 개념인식)	· 향토지역사회	· 재해인지 · 소비자행태 · 농촌정기시장 · 도시생태요인 · 거주선호 · 도시사회지리 · 쇠신의 확산	· 거주지분화 · 도시재개발 · 도시빈민지역 · 지역사회복지 · 교육, 범죄, 의료 · 사회지리학방법론	· 사회이론 · 여성문제 · 도시사회운동 · 환경사회이론

인구가동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생애주기나 통근 등과 관련시킨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달과정을 거친 인구지리학 분야의 연구 관심은 1990년대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계속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사회지리학의 발달과정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도입된 연구주제들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지리학의 기본개념은 이미 1950년대말부터 인식되었으며, 박노식·조동규(1961)에서 처럼 향토지역사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조사방법이 제시되었다. 1970년에 들어오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 및 적응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행위, 농촌사회의 정기시장, 노동력의 상품화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사회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생태 요인을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대도시의 사회지리 또는 도시빈곤에 관한 공간적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매체 또는 사회운동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지리학적 공간개념이나 철학 및 방법론을 다룬 논문들도 발표되었다.<sup>2)</sup>

사회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에 와서 급증했으며, 관련 연구주제들도 훨씬 다양해졌다. 도시요인생태분석과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시빈민이나 그들의 무허가정착지와 이러한 지역들과 관련된 도시

재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또한 특정 유형의 도시빈민(또는 비공식집단)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역 및 도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예로 도시범죄 또는 여타 도시사회시설들, 예로 거주지분화와 관련된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의료, 여가시설 등의 분포나 지역차 및 이들과 관련된 공간행동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나 도시의 특정집단 또는 계층의 지역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지리학적 연구방법론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번역서가 출판되었고, 사회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정리하는 논문도 소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지리학과 관련된 여러 사회이론들, 예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구조화이론,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구조화이론과 관련되거나 사회이론과 지역(사회)지리학의 관계를 다룬 번역서와 이러한 사회지리학의 이론적 개념들이 주요 항목으로 되어 있는 '현대인문지리학사전'(한국지리연구회 역, 1992)이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지리학은 자신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들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분야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역으로 이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주제로

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주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 및 지역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그동안 인간-환경 관계에 관한 지리학적 관심을 끌었던 환경론 분야에서도 환경사회학이나 환경사회이론의 측면에서 재고찰하게 되었다

### 3. 주제별 연구성과와 연구동향

#### 1) 사회·인구지리학의 연구방법론

우리나라 사회, 인구지리학 발달과정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50-60년대의 연구는 주로 통계자료나 지역조사자료를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시나 지역의 특성 또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밝히고 나아가 이들을 유형화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1960년대 초 인구지리학분야 논문들, 예로 한국의 도시성장 및 도시의 유형을 인구의 도시집중과 각 도시의 인구증감을 중심으로 고찰한 강대현(1963), 남한 도시인구의 팽창과 생태를 인구절대량과 밀도, 인구구성, 산업(인구)구성과 도시기능을 고찰한 이한순(1963), 도시지역의 산업별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시기능을 분류한 박성호(1966) 등의 연구는 인구관련 자료들에 기초하여 도시를 분류하고 각 도시의 기능 또는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역의 제반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했던 지리적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특정한 인구현상에 초점을 두고 도시나 지역을 분석하고자 한 계통지리학으로서 인구지리학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시기 사회지리학적 조사방법론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계통학문으로서의 개념과 방법론적 면모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사회·인구지리학 연구방법론은 1970년대 오면서 보다 엄정해 지면서 분석기법들도 보다 복잡해지게 되었고, 기존의 비교적 단순한 분석과 서술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연구방법론, 즉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초반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선택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았고, 이 방법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가설의 설정과 이의 검증, 공간적 모형의 원용, 계량적 통계적 기법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시기 사회·인구지리학의 연구자들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에서 흔히 채택되고 있었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에 나타났던 방법론상의 몇가지 특징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논문들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 확인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이문종(1972)의 재해인식에 관한 연구, 최운식(1972)의 소비자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등은 몇가지 가설들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설을 명시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설(또는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3)</sup> 둘째, 기존의 이론에 근거하거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다. 예로, 중심지이론을 개념적으로 도입한 도시·지역사회의 중심성 분석 및 이를 원용한 농촌지역의 정기시장 분석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박영한, 1972; 류우익, 1972), 도시순위규모법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규모 분포의 변화 패턴에 관한 연구(김인, 1974, 최기엽, 1976; 권용우, 1978), 확산모형을 원용한 문화매체나 사회운동의 전파과정에 관한 분석(박수병, 1977; 김부성, 1979)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계량적 분석기법들이 도입되었다. 예로, 거리와 인구밀도 또는 농촌인구밀도와 경지율간 단순회귀분석(김인, 1974; 박성호, 1976), 인구 및 주택특성의 분포에 관한 다변수 분석(이기석, 1975), 도시생태요인이나 지각면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 또는 주성분분석(이희열, 1977; 최상민, 1979), 쇄신의 확산을 고찰하기 위한 경향면분석(박수병, 1977; 김부성, 1979), 인구증감의 공간적 패턴을 사례로 소개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남영우, 1983)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사회·인구지리학은 이러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경향과 더불어, 현상들의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그 '유형'과 '과정'

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면서 연구주제들에 적합한 여러가지 접근방법들, 예로 지각분석, 행태주의, 도시생태학 등을 채택했다.<sup>4)</sup> 공간적 유형과 과정에 관한 논의는 공간적 현상들의 단순한 서술을 벗어나서 현상들 간에 내재하는 어떤 규칙성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또는 심상도 분석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환경을 선택하며 변모시키는가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처해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각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인구지리학의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에 응용되었던 행태주의적 방법론은 외부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더불어 개인적 동기나 선호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공간적 행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생태학적 접근방법은 주로 요인분석기법을 응용하여 도시공간구조에 기저하는 주요 사회적 차원을 확인하고 거주지역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문화생태학적 지리학에 개념적으로 원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이나 접근방법들을 응용한 사회·인구지리학적 연구들은 그 자체로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직접적으로 기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사회·인구지리학에서 연구방법론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초에 보다 명시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선 설정된 주제들에 접근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를 명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으로서 지리학의 방법론 그 자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리학에 있어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논쟁적으로 제기되었다(이기석, 1980, 1983). 즉 "최근 30여년간에 경험한 지리학의 과학적 접근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최근 지리학에서 논리적 실증주의적 사고에 대하여 서서히 비판이 일고 있지만 아직 지리적 현상에 대한 구조적 특성 파악과 이해에는 정확한 과학적 접근 노력이 뒤

따라야만 하리라 믿는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이기석, 1983, 81-2). 이러한 주장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사실 1980년대 초 서구 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국내 지리학에서도 어떤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연구방법론들이 활발하게 모색되었으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요 방법론은 인간주의적 방법론이었다(최기엽, 1983; 정진원, 1983). 예로, 정진원(1983, 79)은, "실증주의 논리는 인식방법 자체의 경직성, 전제의 편의성, 연구결과가 갖는 현실과의 유관적합성과 윤리적 당위성 등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 비판과 보완으로 인간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주의에서 인간주의적 공간논리로, 객관적, 보편성의 공간에서 주관적, 고유성의 장소로, 그리고 양과 규모에서 질과 내용 위주의 인간생활로의 관점 및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그의 주장은 사회지리학의 발달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sup>5)</sup>, 행태주의적 지리학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성과 등(정진원, 1982, 1987)을 거두었지만, 본격적으로 인간주의적 사회지리학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서구(사회)지리학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학에서도 구조에 대한 개념이나 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러한 배경속에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류우익(1978, 61)에 의하면, "사회지리학적 공간개념에 두가지 서로 관련된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상이한 사회구조와 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각 집단의 존재기본기능 수행의 장소적 양상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과정적인 것으로 그 구조의 새로운 성립 내지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들에서 '구조'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불분명했으며<sup>6)</sup>, 구조(주의)적 방

법론을 직접 응용한 연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지리학에 있어 구조주의적 방법론은 주로 맑스주의적 구조주의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최병두, 1983),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한 지리학적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말 이후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하게 전개된다. 실증주의적 지리학 이후 도입되었던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정리되면서,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사회이론이나 사회철학들이 소개되었다(최병두, 1988). 예로, 박선미(1993)는 도심 재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사회연구에서 기본적인 생태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 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했다(또한 고태경, 1989). 강학순, 박찬석(1992)은 사회관계와 공간구조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구조화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문화경관의 해석에 원용하고자 했다. 또한 실재론(이상일, 1991)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상일, 1993, 구동희, 박영민역, 1994)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방법론이나 사회이론에 기초하여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손명철 편역, 1994)나 소비문화공간이나 도시문화경관으로서의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권정화, 1995; 최병두·구동희, 1995). 또한 환경과 사회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기 위해 생태윤리(류유익, 1992)나 환경사회이론(최병두, 1995)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들도 진행되게 되었다.

## 2) 도시화와 도시인구현상들

사회·인구지리학에서 구체적 주제들에 관한 연구는 우선 도시성장 또는 도시화와 인구현상들에 초점을 두었다. 인구지리학분야에서 최초의 연구자들은 세계 및 국내 인구분포와 그 변화, 즉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인구증감현상에 관심을 가졌다(이정면, 1958; 홍순완, 1959; 이한순,

1959). 이러한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는 그 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인구지리학적 연구가 보다 본격화되면서 도시화와 관련된 인구현상들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한순(1963)은 남한 도시인구의 팽창에 주목하고 인구절대량과 밀도, 인구구성, 산업인구구성 등과 관련시켜 도시의 기능과 생태를 고찰하고자 했으며, 강대현(1963)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각 도시의 인구증감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성장과 도시유형을 고찰했다. 또한 박성호(1966)는 도시지역의 산업별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시기능을 분류하고자 했다. 인구지리학 분야(도시지리학과 중첩되어 있음)의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도시인구의 성장유형에 따라 도시를 구분하거나 또는 산업인구의 구성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료의 단순 분석에 기초한 서술적 고찰이라고 할지라도, 금세기 특히 해방후 도시인구의 급증과 이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또는 이한순(1963, 81)이 이 당시 이미 사용한 용어로서 ‘도시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또한 이숙임, 1969).

도시화와 관련된 인구현상들에 관한 분석은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다. 지역별 인구증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이지호, 1975; 1983; 박성호, 1980). 즉 인구이동은 사회적, 인구학적 변수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공간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도시간 인구이동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도입되었다(한대현, 1982; 남영우, 1985). 이러한 인구이동은 개별 도시나 농촌지역 또는 전체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 및 인구이동과 관련된 변수들 또는 원인들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했다. 인구증감과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특히 도시규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인구의 증감과 관련된 도시체계의 변화를 분석한 김인(1976), 최기업(1976), 권용우(1978)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인구성장과 도시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소수

의 대도시에 인구가 과잉집중함으로써 초래된 중주 도시화현상을 밝히고자 했다.

도시인구성장은 대도시내 인구(밀도)분포, 인구구성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 대도시내 인구분포는 도심과 부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었으며(이영택, 1970), 도시인구밀도 분포의 패턴을 분석하여 도시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김인, 1974). 한편 인구구성의 변화는 주로 연령인구지수의 방법에 따라, 연령별 인구구조가 일정시점에서 어떠한 공간적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시계열상으로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박영한·권용우, 1980; 권용우, 1981; 조창연, 1982; 이회열, 1983). 이들의 연구는 지역 전체의 연령구조가 점차 노령화되면서, 연령구조지수의 공간적 분포양상도 상당한(예로, 도심과 부도심, 그외 지역 등에서 차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밀도분석이나 연령인구지수분석은 총계적 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전체의 인구현상을 설명하고자 함에 따라, 한편으로 인구통계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들에 관한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인구현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관한 사회경제적 분석이 요청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보다 세분화된 자료에 기초한 구체적 지역인구현상, 예로 도시내 또는 교외지역으로의 거주이동 등에 관한 분석을 보완적으로 필요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추정이나 성장예측을 위한 원격탐사의 이용(임한수, 1982; 이회연, 1983) 및 컴퓨터활동에 관한 연구(유영훈, 1985)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인구현상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 예로 지역간 광공업생산의 격차와 인구이동 간의 관계(신용철, 1981) 또는 도시의 산업구조와 인구성장간의 관계(이기석, 1984)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급성장한 산업도시(예로, 울산)에서 인구성장과 고용구조의 변화간 관계에 있어, 공식분야의 고용변화가 인구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비공식분야의 고용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또한 산업별로 어떤 부분의 고용변화가 인구성장

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가를 밝힐 수 있었다.

도시내 및 주변지역과의 인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도시내부 거주지 분화와 관련된 주거이동, 교외화와 인구이동, 통근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 예로, 이재덕(1979)은 1960년대 후반 도시내부 거주지 분화가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도시내부 거주지 분화를 구조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도시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졌다고 전제하고, 도시 및 지역간 이동과는 달리, 대도시 서울 시내 거주이동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주자의 지적 이미지와 간선도로망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했다. 교외지역으로의 거주이동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에 의하면, 교외지역으로의 거주지 확장으로 그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밀도가 조밀해 지며, 중심도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통근통학권이 형성되고, 중심도시에서의 쇼핑, 레크레이션 등의 연유로 통행패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행태, 지역사회에의 참여활동, 새로운 공간적 계층질서의 대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이 전개된다고 지적하였다(권용우, 1983).

이러한 교외화의 진전 및 이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들에 뒤이어, 대도시로의 통행이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통근과 거주이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통근관련사항을 단지 분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교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예로, 권용우, 1986)에서 나아가, 통근의 구체적 내용, 즉 '도시적 노동시장에의 참여'라는 그 성격에서 인구의 재배치에 따른 지역적 변화를 구명하고자 했다(홍상기, 1988). 또한 이러한 연구는 통근의 '거리조락성'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주행동을 분석하고자 했다(허우궁, 1991). 교통지리학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은 교외지역(또는 보다 넓게 수도권지역)의 전입인구는 전거주지와 통근목적지의 조합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간에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와 같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이고 영구적인 도시, 지역간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내 거주이동, 교외지역의 통행이동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예로, 시간지리학의 개념(전경숙, 1989)을 응용한 일상적 공간이동에 관한 연구들(예로, 김미정, 1983; 이재하, 1985)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혜중(1993)은 인구이동을 주거지 이동과 같은 영구적 이동과 여객의 이동이나 환자의 수진이동과 같은 일시적 이동으로 구분했다. 그는 광주 중심의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한 분석에서, 교육인자와 이주자의 거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1일이동의 분석에서는 주말과 휴일의 방문이동 등이 탁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에도,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인구이동(예로, 고대의 인구이동, 8.15와 6.25전후의 인구이동 등)에 관한 연구(남상준, 1985; 이인희, 1986) 및 외국에서의 인구현상들에 관한 연구(예로, 최효남, 1982; 김학훈, 1985; 조혜중, 1987, 1988 등)에 관한 연구들이 198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3) 인구이동과 농촌사회생활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 또는 도시인구성장은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농촌사회생활의 변화를 수반했다. 농촌지역의 인구분포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요인 중 농업활동에 적합한 지형, 기후, 토양 등, 즉 토지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 자연 인구희소지역을 형성케 된다”고 할 수 있다(박성호, 1976, 60).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분포는 이러한 농업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유출 및 농촌지역의 사회생활 조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급감에서 오는 촌락과 소의 문제는 인구의 측면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자연증가율이 저하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부족→생산활동의 위축→자원이용의 조방화와 정체를 가져오며,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유출→지역사회의 기능마비→주민생활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한 상태로 몰고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오홍석, 1980, 60).

이러한 점에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농촌으로부터 도시지향적인 인구이동은 농업 노동력의 유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과소문제를 초래하거나(이중우, 1974; 오홍석, 1980), 사회경제에 현저한 변화를 유발했음을 밝히고자 했다(류우익, 1981). 또한 도시로 이주한 이촌농민들이 부분적으로 다시 환류하는 현상도 연구되었다(한대현, 1981).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우리나라 모든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고, 따라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요청되었다. 또한 농촌인구의 이출 동기, 형태 및 그 영향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전제하에서, 김기혁(1982)은 농촌인구의 이출과 이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출과정에서 단계적, 연쇄적, 선별적 인구이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학력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거시적으로 대도시로의 접근성(외적 조건)과 농업인구구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했으며(김기혁, 1984), 이러한 연구는 농촌지역의 인구분포와 토지이용(내적 조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성호(1976)의 논문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향적인 인구이동에 관한 미시적 분석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으며<sup>7)</sup>, 예로, 이문중(1994)은 동족적 결합의 강약이 인구유출의 형태나 과정 및 촌락의 변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영향은 전통농촌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통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및 산촌)사회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문화역사지리학적 또는 촌락지리학적 연구로 분류되어 왔지만, 또한 사회·인구지리학적 연구의 주요 성과로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취락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가옥구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성, 토지이용, 사회(공동체)적 관계, 전통적 생활양식 등을 다루고 있으며, 다

소간 지역지리적 방법으로 주제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전공분야의 연구라고 분류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관동지역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에 관한 옥한석(1994)의 역사지리적 연구는 향촌 지배세력의 성장, 재편, 공동체의 해체 등을 다루면서 "사회변동은 사회체계의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물론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보다는 대도시이나 대규모 공단주변지역의 농촌사회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sup>8)</sup> 즉 대도시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함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농촌지역이었던 이들 주변지역이 새로운 교외지역으로 그 공간적 기능과 경관상의 변모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용우(1984)는 사회경제적 및 토지이용의 측면을 기초로 교외화의 배경과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임석희(1988)는 공단건설이라는 갑작스러운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농촌지역 중에서 공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가장 일차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서, 공업단지 주변농촌에 관심을 두고, 공단이 주변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구성의 이질화로 혼주사회화(混住社會化)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내적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는, 우선 농촌지역의 정기시장과 중심지 서비스기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정기시장은 전통적인 농촌사회 또는 농민사회가 갖는 한 특징이다. 한국농촌에 있어서도 정기시장은 경제발달과 더불어 지역구조를 형성 변용시켜온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시장의 생태와 그 체제의 유형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지리학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되었다(류우익, 1972). 정기시장은 사회지리학의 주요 주제로서 '존재기본기능'의 하나인 급양(給養)의 공간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류우익, 1978), 이재하(1986) 등의 연구를 통해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박영한(1975), 박성호(1980) 등은 농

촌중심지의 서비스기능에 관한 보다 포괄적 연구를 제시하면서, 중심지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어떻게 입지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주경식(1986)은 농촌지역의 중심지기능을 다른 여러 요소들, 즉 중심지의 인구분포, 입지, 규모, 세력권뿐만 아니라 통혼권, 시장권 등과 비교분석하여 '불완전 개방지역'이라 칭한 진도지역에서 형성된 읍규모의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 변화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 서비스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과 정책대안들도 제시되었다(오홍석, 1987; 정옥주, 1994).

도시화 및 인구유출과 관련된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농촌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지역주민들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들이 분화되고 있으며, 각 집단들의 대응양식도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히고자 했다. 예로, 김태환(1988)은 가구의 생애주기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주 유형집단을 분류하고, 각 유형집단별 활동공간의 특성을 고찰했다. 또한 정부매, 최기엽(1994)은 대도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서울 근교에서도 사회구조상의 이질화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집단 유형의 유별화와 제 요소들의 대조적 관찰을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성촌을 선택하여 공업화에 따른 여러 변화들을 고찰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농업종사자는 모두 원주민 집단이지만, 원주민 집단에서도 제2세대 이하 가족원인 20~40대 연령층에서는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극히 낮고 상업, 생산기술직, 회사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농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재촌임노동자화했으며, 이입타성집단은 모든 연령층에서 생산기술직에의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주민집단들 간 거주유형이나 공간행동양식 그리고 취업활동 등 존재양상에 있어 집단별 상이성은 지방별로 상이한 지역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개발리더의 위치와 의미 및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문순철, 1990, 김상빈, 1992), 농민운동의 한 유형

으로서 수세거부운동의 확산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이정록, 1990).

#### 4) 거주지분화와 도시재개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유출과 도시인구집중현상은 도시내부에서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공간으로서 거주지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도시거주지 문제에 관한 사회(인구)지리학적 연구는 거주지의 부족 그 자체 보다는 거주지의 분화와 하위계층 거주지의 열악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주지분화에 대한 최초 접근방식은 시카고학파에 의해 제시된 동심원모형에서 확인된다. 이 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고전적 도시생태학은 도시거주민에게 침입, 천이, 격리라는 생태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가(地價)지불능력 차이에 의해 주거지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그 이후 보다 많은 변수들을 주성분분석이나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소수의 중요한 차원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요인생태학적 연구로 세련되어 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도시 '생태'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게 되었고, "생태요인분석은 도시공간 구조를 연구하는 한 접근방식으로서, 도시공간구조에 기저하는 주요 사회적 차원을 확인하고 거주지역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기술하는 종합적 틀"로서 제시되었다(Pitts, 1973). 우리나라에서 생태요인분석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이기석, 1975, 1980; 최상민, 1979; 강대현, 1980; 윤진숙, 1980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최원희, 1987; 김일봉, 1993). 그러나 생태학적 접근은 집합적 주거입지패턴 및 분화양상과 지역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그 기법상 투입되는 변수의 성격에 의해 분석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특히 거주지분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는 행태주의적 측면에서 환경지각과 거주선호로 설명되거나, 또는 여러가지 인구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관련지워 설명하고자 했다. 예로,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주변환경에 대한 지각이나 태

도는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인간의 지표공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거주욕망은 환경지각에 의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거주선호로 표출된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희열(1977)은 지각점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선호의 '심상도'가 상호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환경지각과 거주선호에 관한 이러한 행태주의적 연구는 이주자의 특성, 즉 주거의식이나 이주동기, 생애단계 등과 관련된 거주지선택과 분화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으며(이문숙, 1984; 정승일, 1988, 1993). 또한 거주지선택행동을 통근 및 여타 주거환경변인들과 관련지우는 연구도 수행되었고(허우금, 1991), 보다 인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거주선호의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김원경, 1994). 거주자의 개인적 지각이나 동기 또는 특성에 기초하여 거주지선택과 그 분화를 주로 행태주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이러한 연구들은 거주지분화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 즉 사회공간적 배경에 관한 연구와 병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공급의 유형과 공급방식은 거주지분화의 배경에 관한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이기석(1980, 1982)은 주택이 사회경제적 계층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의 종류별 입지의 차별성이 거주지의 분리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숙임(1993, 1996)은 주택지의 공간적 팽창과정에서 주민의 계층분화 현상이 촉진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을 달리하는 인구집단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거주지분화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거지분화를 이루게 되는 현상들 중에서 주택유형과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주민의 계층화현상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이숙임(1983)은 새로운 개발과 함께 짧은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확일적인 주택의 건설이 예기치 않은 거주지의 분화현상, 즉 주택유형과 위치에 따른 국지화현상을 촉진했음을 확인했다. 즉 이 연구에 의하면, 주택유형 분포와 주민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사회경제적 계층

분화가 주택의 유형과 위치에 의해서 공간적인 분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계층에 의해서 도시내 구조적 분화현상이 탁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성장확장단계에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아도 무난하리라”는 생각(이숙임, 1993, 301)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거지분화가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주택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주택은 “도시 공간구조와 사회구조가 서로 교차하는 장”으로 이해되게 되었으며, 생산활동과 관련된 계급의 개념보다는 주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바탕을 둔 주택계층의 틀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영현(1991)은 주택계층 분류의 기준으로 거주지역의 계층화를 도입하고, 경제적 능력 외에 생활양식상의 선호, 생애주기 등의 요소에 의한 주거선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개인의 선호나 의식이 주거지분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지 또는 그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된다. 만약 “특정한 거주지들은 특정한 거주집단, 거주환경, 노동시장, 소비부문의 모자이크이며, 거주지는 이러한 환경요소에 의한 개인의 가치, 기대, 소비습관, 의식상태, 시장능력 등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장”(도경선, 1994)이라면, 거주지분화로 인한 결과로서 개인적 선호나 의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sup>9)</sup>

이러한 도시주거지분화에 관한 연구는 분화의 한 주요 부분인 빈민지역 또는 도시무허가정착지 및 이 지역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도시재개발에 관한 연구와 연계된다. 사회과학 일반에서 무허가정착지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고용구조의 특성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주거환경의 열악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로 구분되며<sup>10)</sup>, 지리학은 후자의 측면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구성과 주거환경의 발달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기석(1977)은 서울 대도시의 인구분포, 인구밀도, 도시지역의 확대에 있어 무허가정착지(urban squatter)에 관하여 논의했으며, 원학회(1980)는 서울시 변두

리지역이 철거민, 토착주민, 행정당국, 주택공사에 의해 택지화가 시작되었다고 전제한 후, 생활환경시설, 세대주의 특성, 주택지표의 변화양상을 감안하여 이 지역들의 주택지 형성과정을 농촌기, 발상기, 성장기, 성숙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1983)과 오세창(1983) 등의 연구도 비교적 일찍 이러한 지역에 관해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예경희(1984)는 이러한 도시빈민을 구성하는 주요한 비공식 집단들 중의 한 유형을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도시빈민(지역)에 관한 연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끌어왔으며, 최근의 연구로 김용창(1988), 배숙희(1991)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재개발문제는 이러한 주거지분화 및 도시무허가정착지와 관련된 주요 주제로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은숙(1982)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조사연구했으며, 최운식(1983)은 도시의 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가옥의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옥의 불량지수, 불쾌지수, 건물지수, 주거지수 등을 분석했다. 또한 재개발 또는 신시가지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택개발방식이 주거지형성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예로, 홍인옥, 1988). 물론 도시주거지 분화와 도시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토지이용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토지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심의 토지이용 일반(예로 길용현, 1980), 또는 지가의 분포와 상승추세(김원경, 1983; 남영우, 1983; 장영희, 1987), 지가를 결정하는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거나(이현옥, 1988), 단지 부분적으로 도시재개발이 도시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정도였다(최병두, 1990). 그러나 도시(또는 도심)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토지이용 및 소유와 그 개발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 즉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심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한 주장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박미선, 1993).

### 5) 도시사회생활과 지역사회복지

도시사회생활은 주거지분화와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소비생활), 교육, 의료보건, 문화시설, 범죄, 여가, 환경 등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공)시설들의 입지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간행동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이 요청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 또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 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들을 요구하는 도시(지역)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우선 도시사회생활에서 소비자행태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공간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최운식, 1972), 대부분 행태론적 접근에 기초했다. 즉 산업입지나 인구가동 및 거주지선택에 관한 고찰에서 시작된 행태론적 연구는 소비자행동분석에도 응용되었으며, 지각분석과 결합되면서 상업시설 또는 구매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나 이미지 등 주관적 변수와 이동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행위는 구체적인 구매공간의 선택에 앞서 선택집합의 구성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집합으로서의 구매통행 목적지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시간지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조창현, 1994), 구매자행위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인간주의적 접근이 제시되기도 했다(김송미, 1991). 한편 이러한 소비자행태와 관련된 상업시설, 예로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관하여 확산이론을 적용시킨 연구가 제시되기도 했다(이희연, 1984).

또한 교육시설의 입지와 그 지역적 차이 및 이와 관련된 행동도 사회지리학적으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박영한(1984)은 사회경제구조와의 관련성에서 교육행동의 지역적 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교육행동에 관한 지리학은 1960년대

이래로 사회균등문제를 비롯하여 인간자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인력의 지역적 배분과 지역발전간의 관련성이 증대되면서 활발히 진전되었다"고 서술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기회수준은 도시와 농촌간에 큰 격차가 있으며, 주변지역으로 갈수록 교육기회는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상급학교에 이룰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한편 전경숙(1992)은 일상생활 중 제한된 시공간 범위 가운데 어떠한 행태를 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만, 가능한 한 넓은 시공간 범위를 확보하여 다양한 행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생활의 질, 보다 나은 삶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실제적인 입지와 그 이용 유형 및 적정 입지-배분에 관해 분석했다. 이러한 관심속에서 서태열(1987), 송운선, 이은숙(1993) 등은 고등학교의 분포와 학군을 주제로 한 교육환경에 관해 논의했다.

1980년대 전반부에 도시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의 증대는 이러한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나 범죄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는 이와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와 이에 따른 지역복지수준의 차이라는 측면 보다는 주어진 시설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의료행위와 의료권의 설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이동욱, 1984; 김신태, 1985). 도시범죄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화와 관련된 범죄의 공간분포와 그 변화에 관한 시계열분석이 이루어 졌다(구만자, 1982; 최진석, 1985). 그리고 범죄행위 주체는 인간 개개인이지만, 행위는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환경요인의 차이와 범죄행위의 지역적 차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최운식·배미애, 1987).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율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경희(1992)는 도심과 부도심에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대체로 높지만,

교통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뚜렷한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반면, 최진석(1994)은 청소년의 범죄가 도시내부지역 및 신개발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생활에서 여가활동이 그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박숙희(1984)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주거, 노동, 급여, 교육, 교통 및 공동생활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기본기능의 하나이며, 사회지리학적 연구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해 그 종류, 빈도 및 소요시간과 공간적 패턴을 특히 사회적 집단과 주거지역에 따라 분석하고 그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여가의 사회지리학은 그동안 지리학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관광지리학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연계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방법론을 응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예로, 윤길중, 1988 등). 이러한 점에서, 권용우·김선희(1994)는, “관광은 일상적, 반복적 생활에서 변화를 찾으려는 인간욕구의 실현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지표공간의 다양성은 이러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본질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자원에 관한 지리학적 문헌들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내부에서 이러한 여가활동과 관련된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관심도 제시되었다. 이영경(1990)은 문화예술공간이란 “단순한 시설물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분위기,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환경의 요소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공간이 서울시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문화예술공간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로 스포츠위락시설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한동섭, 김영성, 1987)이나 도시문화경관 일반에 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논리속에서, 문화경관, 문화의 지역적 차별성 및 변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최홍준 외, 1993; 권정화, 1995; 최병두·구동희, 1995). 이러한 연구

들은 문화공간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문화공간은 그 자체로서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상황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사회지리학적 연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지리학의 또 다른 새로운 연구주제로서 여성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문제에 관한 지리학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소개된 바 있지만(이혜은, 1984),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행된 지리학적 연구는 성에 따른 직주분리의 정도와 이에 의한 통근통행행태의 차이를 분석하는 정도이다. 성에 따른 취업자의 지역별 통근율의 차이와 취업기회의 차이를 분석한 노시학·손종아(1993)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취업자의 경우 직장과 거주지의 위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이들의 취업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중헌(1994)은 이러한 연구에서 나아가,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계에서 여성의 특수한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구내 동학(가부장제로 인한 이중역할의무)에 의한 공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차별화된 국지적 형성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 역할의 이중성이나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국지적 형성과정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사회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환경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리학의 전통적 개념속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보다 활발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는 주제이다.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된 도시환경 문제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끌었으며(예로, 유영휘, 1968; 오홍석, 1978), 특히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한 대한지리학회 창립 35주년 기념심포지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형기주, 1980; 이기석, 1980). 도시환경문제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최근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자연지리학적 연구의 대상이겠지만,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환경의식이나 환경윤리의 퇴락(류우익, 1992) 또는 도시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성이나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최병두, 1995)는 점에서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도시사회가 안고 있는 각 측면들에 관한 연구들을 생활수준의 지역불균등을 강조하는 도시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각 측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기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성, 1980, 1984; 최병두, 1981; 최진석, 1982).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는 경제문제나 경제중심의 개발보다는 사회생활과 국민복지와 관련된 실제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측정 내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주거환경, 교육, 보건위생, 교통통신, 문화여가, 사회재정 분야 등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을 선정하고(또한 객관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주관적 지표들도 동시에 사용),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또는 군락분석 등을 통해 그 지역적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개별 도시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세분된 지역별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비교하고 그 격차를 밝히고자 했다.

도시 및 지역사회의 생활수준 또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계량기법들을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지만,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류우익·이정환(1985, 1988)의 연구는 도시의 지도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기반시설들(예로 주거, 교육, 보건위생, 교통, 유통서비스, 문화, 위락, 사회복지 등)에 대한 평가나 공단의 영향이나 공해에 대한 직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이나 사회적 결속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한 지역에서 특정계층이 그 지역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도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지역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사회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지리학적 측면에서 제시된 연구는 아직 포괄적 관점 분석이나 전반적인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용창, 1991; 최병두, 1994).

#### 4. 사회·인구지리학의 전망과 과제

지리학의 발달사에서 사회·인구지리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좁은 의미의 사회지리학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관심과 연구성과는 지리학의 다른 어떤 분야와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인구지리학의 전문연구 영역이 다소 모호해지면서, 특히 사회지리학의 경우 또다시 인문지리학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나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리학(예경희, 1994)과 인구지리학(이희연, 1986)에 대한 개론서나 연구업적을 편집한 단행본(이기석 외 1980; 최병두, 1991)들이 다양하게 출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회·인구지리학 분야는 개별 연구주제들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 연구하면서, 인문지리학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서구의 사회지리학이 사회이론 일반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깊이와 경험적 연구주제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더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회·인구지리학의 전망과 과제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인구지리학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철학과 사회이론들이 도입되고, 이들과 지리학 간에 보다 활발한 교류와 논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나 사회이론들, 예로 구조화이론,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기초한 연구들은 앞으로 사회지리학의 전망에 대한 어떤 시사

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론으로부터 원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과 연구주제들은 사회·인구지리학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나아가 인문지리학 일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이론을 지리학에 도입하고자 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특히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손명철 편역, 1994),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은 인문지리학 전반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이론을 환경론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지리학적 시도들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병두, 1995). 이와 같이 지리학과 사회이론 간의 활발한 교류에 기초한 사회지리학의 발달은 지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과학 전반에도 점차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지리학 또는 보다 넓게 인문지리학 일반에서 이러한 방법론들이나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여전히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주의, 구조주의, 정치경제학, 그외 다양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나 사회이론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원용,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성과들은 그렇게 많이 누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론이 우리 사회공간의 연구에 보다 적실하며 가치-합의적인지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분명한 점은 앞으로는 연구방법론이나 사회이론들에 관한 단순한 소개뿐만 아니라 보다 활발한 논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는 방법론적 논쟁을 원칙적으로 금기시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리학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지리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이나 사회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원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전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나 비난적 비판이 아니라 지리학의 학문적 발달과 그 연구대상인 사회공간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쟁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인구지

리학 분야에서 기존의 인구현상들의 공간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분포, 성장, 이동, 구성 등과 같이 단일 주제들에 관한 분석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분석, 인구현상들과 상호관련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 그리고 인구의 성장, 유지를 자원이거나 환경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편으로 거시적 통계자료에 의존하거나 계량기법을 동원하여 인구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인구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현상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연구들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로, 지역사회에서 인구구성이 계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인구구성이 전국적인 사회공간(불균등) 발전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sup>12)</sup>

둘째, 사회·인구지리학분야에서 농촌사회에 대한 보다 적실한 연구들이 요청되고 있다. 농촌사회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 농촌생활양식이나 공동체의식 등과 같이 그 내적 요소들에 관한 주제들과 더불어 외적 조건들에 따른 급격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농업, 농촌인구는 대대적으로 도시로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농촌서비스기능의 쇠퇴는 농촌사회의 저발전을 악순환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상대적 위축은 농촌지역사회에 결정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된다. 비록 농업생산성 및 농촌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지라도, 국토 면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은 매우 넓은 토지를 포괄하고 있다. 농촌의 토지이용과 소유 및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 및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공간적 문제들은 앞으로 사회지리학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셋째, 도시지역의 사회지리학은 앞으로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끌겠지만, 특히 강조되어



야 할 점들이 있다. 그동안 주거지분화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들을 누적시켰지만, 보다 세련된 이론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주거지분화는 공간분화라는 경험적 현상과 사회구조라는 이론적 실체 간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도시사회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많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사회문제들, 예로, 주택, 토지, 교육, 의료보건, 문화시설, 범죄, 여가, 환경문제 등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무시되어 왔던 복지생활의 수준과 직결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실천(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인구지리학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이나 기존의 주제들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예로, 도시문화경관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의 영역이라기 보다 새로운 사회지리학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생활, 광고의 이미지, 건축양식 등과 이들이 함께 혼합되어 형성된 도시문화경관은 도시인들의 사회생활과 담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사회이론이나 개념들을 원용한 분석을 통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학의 전통적 연구 주제인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환경사회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연과학적 또는 기술론적 편향을 극복하고,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균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합성을 가지는 대안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註

1) 즉 博松靜江의 <사회지리학연구사>, 高野史男의 <도시사회연구법>, 喜多村俊夫의 2인 공저의 <촌락사회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에

서, 그는 J.A. Quinn, 1955, *Urban Sociology* 및 L. Wirth, 1951, *Urbanism as a way of life* 등을 참조하고 있다. 또한 김상호(1958)의 <지리학개론>에서 참고문헌으로 George, P., 1949, *Geographie Sociale du Monde*(小川徹 역, 世界の社會地理學), 小原敏士, 1936, *社會地理學の基礎理論* 등이 소개되고 있다.

- 2) 예를 들어, 독일지리학의 전통에서 주요 사회지리학적 개념으로, 인간생활의 기본활동 범주를 의미하는 '존재기본기능'(daseinsgrund funktionen)의 공간적 유형과 과정이 강조될 수 있으며, 이 기능에는 공동생활, 거주, 노동, 급양, 교육 및 여가활동의 6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한편 이러한 존재기본기능은 '사회집단'을 강조하는 영미 사회지리학의 개념들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Jones & Eyles, 1977; 예경희, 1994, 13 및 제4장 참조).
- 3) 예로, 박성호(1976)는 "'농촌지역의 인구분포는 경지분포와 함수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검증코자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회열(1977)에서도, "국토공간에 대하여 갖는 mental image가 거주목적의 한계내에서 상당한 질서와 규칙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설을 대학생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연구결과로서 몇가지 사실들을 밝히고자 했다.
- 4)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확인된다. 즉 "오늘의 지리학은 유형과 과정으로 표현되는 공간조직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제반 공간유형 및 과정을 기술, 분석 및 이해함에 있어서 수학적 모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문화적 지각과 생태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공간행동에 대해서도 중점을 주고 있다. 공간에서의 행동을 고찰하는 행동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은 공간행동에는 규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이회열, 1977, 27).
- 5) 이러한 점에서 레이(Ley, 1983)를 참조할 수 있다.
- 6) 이러한 구조의 개념과 관련하여 R.J. Johnston(1983) 참조. 그는 구조의 개념을 '구성'(construct)으로서의 구조와 '과정'(process)으로서의 구조로 구분한다. 한편 구조의 개념에 대한 이기석(1983)의 정의는 상당히 구조기능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리적 구조 내지

공간 구조란 어떤 분포현상 요소들의 질서 있는 일련의 관계를 가진 위치적 혹은 입지적 배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하나의 공간구조는 상호작용이 상존하는 기능체라고 할 수 있다. … 구조가 지닌 기능적인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구조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김부성(1979)의 연구에서 처럼 구조적 분석과 행태적 분석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록 이들을 병렬적으로 접합시킨 정도라고 할지라도 방법론적으로 어떤 의의를 기진다고 하겠다. 또한 정수영(1984, 62)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구조화이론에 준하는 어떤 방법론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회에서 인간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요건에 따라 공간구조가 형성되면 그 구조는 벌써 인간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지배하는 환경을 이루어, 새로운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견게 된다.”

- 7) 이문종(1984, 77)에 의하면, 그 동안 농촌지역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① 인구센서스자료를 비롯한 인구통계자료에 의한 지역간 인구증감이나 인구이동의 총량적 분석에 그쳤을 뿐 그 프로세스의 메카니즘이나 이동하는 인구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고, ② 보다 정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초로 훌륭한 연구방법이 되는 현지조사를 수반하는 미시적 연구가 부족했으며, ③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농촌지역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 8)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에 대하여 사회·인구지리학적 측면에서 제시된 본 논의는 농업활동 및 재배작물의 변화와 관련된 촌락지리학, 전통적 농촌사회의 문화와 관련된 문화역사지리학, 그리고 농촌사회의 개발과 관련된 지역개발론이나 응용지리학 분야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문헌들은 일단 제외했다.
- 9) 즉 계층별 거주지분화는 주택과 거주환경이라는 회소가치의 불균등분배가 공간상에 표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거주지분화는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상위 거주지로의 선별적 이동성향을 보임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지속시키면서 지역불균등의 누적, 심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도경선, 1994).
- 10) 무려가정착지와 그 주민에 관한 연구는 생활 그 자체의 열악성이나 이에 속하는 특정 집단의 공간

행동, 또는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및 여타 사회운동과의 관계속에서 전개되었던 빈민운동 등과 같이 현실적인 도시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보다 이론적으로 이들의 창출과정, 존재형태를 고찰하여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김용창, 1989).

- 11) 지리학자 페퍼(D. Pepper)의 저작을 번역한 <현대환경론>(이명우 외 역, 1989)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번역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12) 이러한 점에서 ‘노동의 사회지리학’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Cater & Jones, 1989, ch.1). 우리나라에서 농촌노동력 또는 노동시장에 관한 맹아적 연구로서 허우궁(1972)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손명철(1995)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문 헌

- 강대현, 1963<sup>1</sup>, “한국의 도시성장”, 지리학, 1, 15-31.
- 강대현, 1963<sup>2</sup>, “향토지리조사법(박노식·조동규 저)의 서평”, 지리학, 1, 112-113.
- 강대현, 1971, “대도시지역의 도시화과정과 유형의 연구: 서울 동부를 중심으로”, 지리학, 6, 25-50.
- 강대현, 1980, 서울의 도시화에 의한 지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학사.
- 강대현·정승일, 1985, “도시거주에 관한 국내의 연구동향”, 지리학연구, 10, 17-36.
- 강학순·박찬석, 1992, “기든스(A. Giddens) 구조화 이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문화경관 해석”, 지리학, 27(2), 117-128.
- 고태경, 1989, “도시공간 재구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지리학, 40, 91-101.
- 구동희·박영민(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London).
- 구민자, 1982, “도시화와 범죄에 대한 지리적 고찰: 서울을 중심으로”, 녹우회보, 24, 1-15.

- 권용우, 1981, "충청북도지역의 연령구조지수변화", 지리학논총, 8, 45-59.
- 권용우, 1983, "거주지 교외화에 관한 연구동향", 지리학논총, 10, 213-225.
- 권용우, 1984, "서울시 거주지 교외화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패턴", 지리학, 29, 1-19.
- 권용우·김선희, 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29(2), 202-215.
- 권정화, 1995, "미로 속의 사회-공간이론과 대중문화 연구의 유혹", 공간과 사회, 5, 95-124.
- 길용현, 1980, "인구증감과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논문집(경희대), 9, 1-16.
-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이 농업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9, 81-99.
- 김기혁, 1984, "대도시로의 접근성변화가 농업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11, 95-110.
- 김미송, 1991, "소비자의 공간선택에 관한 연구동향", 지리학, 26(2), 182-201.
- 김기정, 1983, "가정주부의 일상적 공간행동과 시간", 경북대 석사논문.
- 김부성, 1979, "3.1운동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지리학, 19, 27-40.
- 김상빈, 1992, "농촌지역의 주민집단과 지역의 식 — 홍성군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20, 33-48.
- 김신태, 1985, "영양군 주민의 의료행동의 측면에서 본 의료권", 지리학총, 13, 21-41.
- 김영성, 1980, "한국도시의 사회적 복리에 대한 주성분 및 군화분석", 지리학총, 8, 35-51.
- 김영성, 1983, "사회복리의 공간변동 연구동향", 지리학총, 11, 77-97.
- 김영성, 1984, "한국의 사회복리에 관한 지리적 연구", 지리학연구보고, 6(경희대학교).
- 김영현, 1991, "서울의 주택계층과 거주지역 연구", 지리학, 26(3), 265-285.
- 김용창, 1988, "대도시무허가 불량주택지역의 거주집단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 김용창, 1991,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올바른 논의를 위하여", 사상문예운동(플빛출판사), 9, 98-117.
- 김원경, 1983, "부산신 지가의 공간변동에 관한 연구, 1966-1982", 부산여대논문집, 15, 403-434.
- 김원경, 1994, "거주지 선호 — 두사람의 경우", 전환기의 한국지리(南溪 형기주교수華甲기념논문집), 교학사, 127-152.
- 김 인, 1974, "밀도분석에 의한 도시인구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 수도 서울을 사례로", 지리학, 10, 33-42.
- 김 인, 1976, "국토의 도시화와 도시체계 공간구조의 변천", 지리학, 14, 41-57.
- 김 인, 1978, "현대지리학의 사고와 연구방향", 지리학논총, 5, 4-14.
- 김 인·박수병, 1974, "도시인구밀도분포의 패턴과 성장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1, 65-79.
- 김 인·박영규, 1984, "주택의 소유관계와 거주지 공간분화 현상: 서울을 사례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6(2), 117-151.
- 김일봉, 1993, "인자생태분석에 의한 광주시의 거주지역 구조 연구", 지리학연구, 22, 33-58.
- 김태환, 1988, "농촌중심도시 취업인구의 거주 유형과 공간활동 — 밀양읍의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5, 143-156.
- 김학훈, 1985, "Los Angeles 한인들의 거주패턴", 지리학과 지리교육, 16, 12-80.
- 남상준, 1985, "고대 한국의 인구이동", 지리학, 32, 39-57.
- 남영우, 1983Ⅰ,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도와 검증",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石泉 이찬박사華甲紀念논문집), 교학사, 114-130.
- 남영우, 1983Ⅱ, "서울에 있어서 자가분포의 지역경향면 분석, 고대사대 논집, 9, 115-130.
- 남영우, 1985, "도시간 인구이동의 계량적 분석", 지리학연구, 10, 91-107.
- 노시학·손종아, 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통행 패턴의 차이 — 서울시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지리학, 28(3), 227-246.

- 도경선, 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23, 25-48.
- 류우익, 1972, "한국의 정기시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낙산지리, 2, 1-14.
- 류우익, 1978, "지리학에 있어 공간개념의 문제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5, 55-65.
- 류우익, 1981,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8, 33-43.
- 류우익, 1992,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윤리의 문제", 지리학, 27(1), 29-45.
- 류우익·이정환, 1985, "지방도시지도층의 지역 의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2, 21-39.
- 류우익·이정환, 1988, "지방도시 청년층의 지역 의식: 울산시의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5, 1-20.
- 문순철, 1990, "농촌주민의 존재양식과 농촌개발의 리더에 관한 연구 — 연기군의 한 촌락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17, 21-40.
- 박노식·조동규, 1961(1970 증판), 향토지리조사법, 정음사.
- 박동원, 1978, "전후 독일의 지리철학", 지리학논총, 5, 15-28.
- 박선희, 1993, "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 경제적 논리의 규명 —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지리학, 28(3), 213-226.
- 박성호, 1966, "한국도시의 기능분류 — 산업별 인구를 중심으로", 지리학, 2, 43-56.
- 박성호, 1976,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분포에 관한 회귀분석적 연구 — 경지율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지리학, 2, 43-56.
- 박성호, 1980ㄱ, "촌락의 중심지기능에 관한 연구", 이기석 외 공저,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제, 74-104.
- 박성호, 1980ㄴ,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1970년대를 중심으로", 공주사대논문집, 18, 743-764.
- 박수병, 1977, "매스미디어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지리학, 16, 55-78.
- 박숙희, 1984,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지리학, 30, 41-61.
- 박영한, 1975, "농촌 서비스의 중심지구의 공간 구조에 관한 연구: 김제군을 사례로", 지리학, 11, 1-15.
-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1, 1-20.
- 박영한·권용우, 1980, "서울시의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이기석 외 공저,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제, 105-126.
- 배숙희, 1991, "한국의 도시빈민지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 논문.
- 서태열, 1987, "서울시 고등학교의 분포와 학교에 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18, 1-21.
- 손명철,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출판사.
-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 지방노동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송윤선·이은숙, 1993, "교육환경의 사회지리적 연구 — 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21, 1-17.
- 신용철, 1981, "지역간 광공업 생산의 격차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8, 61-81.
- 예경희, 1984, "비공식집단의 사회적 속성과 공간행위 — 청주시 접객부의 경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예경희, 1988, "최근의 영미 사회지리학 연구동향", 교육과학연구(청주대학교), 2, 23-47.
- 예경희, 1994, 사회지리학, 청주대학교 출판부.
- 오세창, 1983, "도시 squatter의 지리학적 고찰 — 대구시 남성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논집(대구대학교), 5, 133-154.
- 오홍석, 1978, "환경파괴의 유형과 그 원인", 지리학총, 6, 41-58.
- 오홍석, 1980, "한국촌락의 파소실태와 진흥방안", 지리학, 22, 55-86.
- 오홍석, 1987, "파소지역의 교육환경과 정책적 대응", 지역환경(동국대 지역환경연구소), 5, 5-71.
- 옥한석, 1994,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한울.
- 원학회, 1981, "서울시 근교에 있어서 주택지의 형성과정", 지리학총, 8, 1-33.
- 유영훈, 1985, "1980년 미국 인구 및 주택

- Census 조사방법과 조사범위, 그 computer 활용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2.
- 유영휘, 1966, 도시공해에 대한 소고: 서울을 중심으로, 只山선생 華甲紀念論文集, 79-87.
- 윤길중, 1988, “관광지의 선호와 인지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리학, 37, 87-98.
- 윤진숙, 1980, “요인생태학적 분석에 의한 부산시의 주거형태”, 지리학총, 8, 65-79.
- 이경희, 1992, “서울의 지역별 범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7, 94-118.
- 이기석, 1975, “서울중심지역의 1960년 인구 및 주택특성의 분포에 관한 다변수분석”, 지리학과 지리교육, 4, 1-26.
- 이기석, 1979, Spatial analysis of the poverty area in Akron Central City, Ohio, 지리학과 지리교육, 9, 78-105.
- 이기석, 1980ㄱ, “계량혁명과 공간조직론 —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구조적 변환”, 현상과 인식, 4(2), 157-177.
- 이기석, 1980ㄴ, “대도시 거주지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기석 외 공저, 한국의 도시와 촌락 연구, 보진재, 127-172.
- 이기석, 1980ㄷ, “도시환경의 실태”, 지리학, 21, 68-71.
- 이기석, 1982, “주택건설과 도시내 지역분화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대한주택공사), 42, 109-118.
- 이기석, 1983, “지리학 연구와 개념에 대하여”,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石泉 이찬박사 華甲 기념논집), 교학사, 81-92.
- 이기석, 1984, “산업도시의 인구성장과 고용구조변환에 관한 연구”, 지리학, 30, 14-27.
- 이기석 외, 1980, 한국의 도시와 촌락 연구, 보진재.
- 이동욱, 1984, “통원나환자의 공간행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 서울을 사례로”, 녹우회보, 26, 92-114.
- 이명우·오구균·김태경·최승(역), 현대환경론, 한길사(Pepper, D., 1984,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Croom Helm, London).
- 이문숙, 1984,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입지행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이문종, 1972, “한강의 홍수와 그에 대한 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지리학, 7, 24-39.
- 이문종, 1974, “4대강 유역 주민에 대한 perception 연구”, 지리학, 9, 24-39.
- 이문종, 1994, “동족촌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변모”, 지리학, 30, 77-89.
- 이상일, 1991, “실재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일,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의 해체인가 재구성인가?”, 지리교육논집, 30, 51-89.
- 이숙임, 1969, “인구현상으로 본 서울의 도시화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집(이화여대), 13, 135-154.
- 이숙임, 1983, “주택유형의 지역적 분화와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石泉 이찬박사 華甲 기념논집), 교학사, 281-301.
- 이숙임, 1987, “서울시 거주 공간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 1990,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7, 1-20.
- 이영택, 1970,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의 형성: 서울의 인구분포”, 지리학, 5, 31-40.
- 이은숙, 1982, “도시재개발과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 25, 29-39.
- 이인희, 1986, “8.15와 6.25를 전후한 북한출신 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3, 44-68.
- 이재덕, 1979, “서울시내 거주이동의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6, 70-86.
- 이재하, 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竹坡 홍순완박사 회갑기념논문집, 399-421.
- 이재하, 1988, “한국의 정기시장 변화과정”,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이 전, 1983, “자생적 정착지의 입지 및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정록, 1990, "수세거부운동의 공간확산과 지역구조: 1987-1989", 지리학, 41, 57-78.
- 이정면, 1959, "Population movement of Korea: International movement", 경희대학교 논문집, 2(1), 20-37.
- 이정면, 1964 "한국인구의 국제이동과 그 경향", 경희대학교 논문집, 3, 43-65.
- 이중우, 1974,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의 변화", 경북대학교 논문집, 18, 33-61.
- 이지호, 1962, "한국의 인구증가의 형태: 1949-1960", 조사월보(통계국), 8, 1-28.
- 이지호, 1975,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가에 관한 연구: 1960-1975", 지리학과 지리교육, 5, 48-74.
- 이지호, 1983,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가에 관한 인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3, 1-9.
- 이한순, 1959, "남한도시의 기능적 고찰 — 산업인구 구성을 중심으로", 고병한박사 송수기념 논총, 607-620.
- 이한순, 193, "남한도시인구의 팽창과 상태", 지리학, 1, 67-82.
- 이현욱, 1988, "광주시 주택지 지가의 분포와 그 형성요인분석", 지리학, 37, 69-86.
- 이혜은, 1984, "여성문제 연구에 있어서 지리학 적 접근", 여성학논집(이화여대 여성연구소), 1, 92-110.
- 이희연, 198, "인구측정과 토지이용도제작에 있어서 원격탐사의 활용", 지리학과 지리교육, 13, 114-135.
- 이희연, 1984, "도시체계를 통한 쇄신의 확산: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1, 21-37.
- 이희연, 1985, "도시연구의 새로운 관점: 인간행태적 접근", 지리학, 31, 94-100.
- 이희연, 1986, 인구지리학, 법문사.
- 이희열, 1977, "거주선호 mental map에 관한 연구", 지리학, 15, 27-56.
- 이희열, 1983, "부산의 인구구조 및 변화 — 연령구조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 227-240.
- 임석희, 1988, "공업단지 주변농촌의 주민구성과 특성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지리학논총, 13, 83-97.
- 임한수, 1982, "원격탐사기법의 주택인구 및 토지이용 분석에의 응용", 지리학총, 10, 162-187.
- 장보웅, 1988, "전남 도서지방 어촌의 구조와 기능 —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지리학, 38, 1-14.
- 장영희, 1987, "서울시 지가변동체계에 관한 연구", 지리학, 36, 26-36.
- 전경숙, 1989, "시간지리학의 개념과 응용", 지리학총, 17, 83-94.
- 전경숙, 1992, "광주시 유아교육기관의 적정 입지 — 분배에 관한 연구", 지리학, 27(3), 208-231.
- 정부매·최기엽, 199, "서울 근교 전통농업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340-359.
- 정수영, 1984, "수도권에 있어서 사회적 인구증가의 공간적 패턴과 그 형성과정", 지리학, 30, 62-76.
- 정승일, 1984, "대구도심부의 입체적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9, 233-256.
- 정승일, 1986, "대구의 고층집합주거지역 형성과정과 분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보고 11(경희대학교).
- 정승일, 198,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의 연구동향", 사회문화연구(대구대 사회문화연구소), 7, 33-46.
- 정승일, 1993, "주거이동과 주거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1, 19-37.
- 정옥주, 1994, "농촌지역 국민학교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23, 73-95.
-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대한 연구 — 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9, 59-79.
- 정진원, 1983,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법", 지리학논총, 11, 95-110.
- 정진원, 1987 "공동체 이론과 그 지리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4, 105-118.
- 조동규, 1960, "토지이용과 인구에 관한 연구 (단양, 제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1-87.
- 조창연, 1979, "서울시 중심지역의 인구변화와

- 학령인구에 대한 지리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 145-165.
- 조창연, 1982. “도시인구밀도분포의 공간적 패턴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논문집, 20, 391-408.
- 조창현, 1994. “구매통행 목적지의 시공간적 선택 — 서울시내 거주 취업자의 평일 구매활동을 대상으로”, 지리학논총, 24, 157-174.
- 조혜중, 197. “Mormon교의 서부이동과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4, 33-46.
- 조혜중, 1988. “Utah주 인구특성과 Mormon의 영향”, 지리교육논집, 19, 30-48.
- 조혜중, 1993. “광주 중심의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28(1), 40-57.
- 주경식, 1986. “불완전 개방지역의 지역구조에 관한 시론: 진도의 경우”, 지리학, 34, 14-29.
- 진종현, 1994.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24, 175-196.
- 최기엽, 1976. “한국 도시의 규모분포”, 지리학연구, 1(2), 27-44.
- 최기엽, 1983. “장소의 이해와 상징적 공간의 해독”, 지리학총, 11, 151-163.
- 최덕주, 1958. “남해도의 인구와 취락”, 지리지질학보(경남지리지질학회), 4, 71-77.
- 최병두, 1981. “지역사회복지와 그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 경험적 고찰”, 지리학, 24, 55-78.
- 최병두(역),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London).
- 최병두, 1988. “인문지리학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지리학, 38, 15-36.
- 최병두, 1990. “도시토지 및 지대 문제에 관한 연구: 지대 유형에 따른 대구시 지가분석”, 지리학, 42, 85-112.
- 최병두, 1991ㄱ,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 최병두(역), 1991ㄴ,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Giddens, A., 1982,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Blackwell, London).
- 최병두, 1994. “한국 지역사회운동의 발달과정과 전망”,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72-323.
- 최병두, 1995.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 최병두·구동회, 1995. “포스트모더니즘과 도시문화경관으로서의 건축양식”, 공간과 사회, 5, 125-152.
- 최상민, 1979. “서울과 부산의 생태요인 분석: 1960”, 지리학논총, 6, 44-69.
- 최운식, 1972.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지리학, 7, 40-52.
- 최운식, 1983. “도시 재개발에 대한 사회지리적 접근”,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石泉 이찬박사 華甲기념논집), 교학사, 131-143.
- 최운식·배미애, 1987. “한국의 범죄공간”, 지리학논총, 14, 321-330.
- 최원희, 1987. “인천시 거주지역구조: 1970-1987”, 지리학, 36, 58-76.
- 최진석, 1983. “한국복리수준의 사회경제적 공간구조”, 지리학, 28, 66-85.
- 최진석, 1985. “대전시 범죄발생의 시계열분석과 패턴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 논문집, 23, 263-274.
- 최진석, 1994. “공주시 청소년범죄 발생의 시계열적 분석과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32, 1-13.
- 최홍준·김용창·구동회·이정재, 1993. “서울 도시경관의 이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서울연구, 한울, 412-436.
- 최효남, 1982.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한국인 거주분포 형태”, 지리학연구, 10, 531-543.
- 한국지리연구회(역), 1992. 현대인문지리학사전, 한울.
- 한균형, 1985. “충남 미원면의 장티푸스 원인”, 상당지리, 1-8.
- 한대현, 1981. “이촌농민과 그 환류인구에 관한 지역적 분석”, 지역개발논문집(경희대학교 국토종합개발연구소), 10, 15-28.
- 한대현, 1982. “국내 인구이동분석에 관한 방법과 모델”, 지리하가총, 10, 222-232.
- 한동효·기명성, 1987. “스포츠위락시설의 입지

- 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명지리*, 5, 1-30.
- 한주성, 1995,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본 청주시의 거주패턴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0(1), 57-67.
- 허우궁, 1972, “근교농촌의 노동력 상품화와 그 영향: 김해의 사례”, *낙산지리*, 2, 71-78.
- 허우궁, 1991, “서울의 통근과 주거지 선택”, *지리학*, 26(1), 46-61.
- 형기주, 1980, “환경론, 어제와 오늘”, *지리학*, 21, 53-57.
- 홍상기, 1988, “경기도의 통근양상과 전입인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5, 65-82.
- 홍순완, 1959, “근대산업과 인구, 도시집중의 상관관계”, *문리대학보(부산대학교)*, 2.
- Cater, J. and Jones, T., 1989,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ssues*, Arnold, London.
- Clark, J.I., 1965,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Oxford.
- Jones, E. and Eyles, J., 1977, *An Introduction to Social Geography*, Oxford Univ. Press, Oxford.
- Johnston, R.J., 1983,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Arnold, London.
- Lee, Ki-Suk, 1977, *A Social Geography of Greater Seoul: Processes and patterns of metropolitan Expansion*, 보진재.
- Ley, D., 1983, *A Social Geography of the City*, New York, Harper & Low.
- Pitts, F.R., 1973, “한국의 도시생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지리학*, 8, 24-36( Pitts., 1971, Factorial ecology of Seoul and Taegu, Korea. *Economic Geography*, 47, 300-312의 요약번역문).

## Progress and Prospect of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in Korea

Choi, Byung-Doo\*

### Summary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in Korea has been developed somewhat later than other special subjects of geography. But in recent years, it has attracted much interests of geographers, and accumulated a considerably large amount of research products. Seen in this context, it is reasonable to expect that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will not only lead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in the future,

but als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socio-spatial problems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all retrospect in this paper the progress of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in Korea since the 1950s, and look out its future prospect and further research tasks. In the first place, we discuss general concepts and major themes of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and overview its development process, and than review in more details some important research products which would be categorized into five main

\*Dept. of Geography Education, Taegu University



subjects, that is, research methodology, urbanization and urban population phenomena, population movement and changing rural lif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and urban redevelopment, and urban social life and regional social well-being. Finally, we consider briefly the

future prospect and further tasks of social and population geography in Korea.

Key Words: social geography, population geography, population phenomena, rural and urban social lif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regional social well-being.

### 김영성(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최고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청취소감과 향후 인구지리학의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은 사회인구지리학은 활기찬 학문이나 좁은 의미에서의 인구지리학은 사회지리학에 비해 학문 영역내의 지위가 약화되었구나입니다. 내용의 전개과정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일제가 퇴각한 후 창설된 대학의 지리계 학과내 최초의 교수와 네번째의 교수는 인구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지호교수와 이한순교수입니다. 1970년대까지 사회지리는 대학지리학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았으나 인구분야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주요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인구지리의 연구논문 수는 전체 석사논문이나 발표된 지리학 논문(이기석 교수가 편집한 한국지리논문목록내 논문) 중에서 5% 정도를 점하였습니다. 표 1과 관련하여 1950년대에 이미 국제이동, 1960년대에 인구구조, 인구문제, 인구포텐셜, 인구의 도시화, 1970년대에 인구와 자원 등의 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에는 이지호, 이정면, 이한순 및 홍순완 교수 등이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논문의 절대 양에 있어서는 성장하였으나 상대적 열세가 되었습니다. 대한지리학회지(1963.7~1995.6)에 발표된 논문 269편 중 인구분야 9편, 사회분야 41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1980년대 이후 사회분야가 29편인데 비하여 인구는 불과 5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 전반

기에 비해 후반기에도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된 지리학 논문 중 인구분야는 전반기에 5.3%에서 후반기 5.0%로 감소되었으나, 사회부문은 3.3%에서 9%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지리는 지적망각(intellectual limbo)을 향해 떠나가고 있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인구지리학이 사회지리학내로의 이행을 포함한 지위의 약화 요인은 패러다임의 이행과정과 관련되고 복합적입니다. (1) 세칭 지리학계 1세대들의 은퇴, (2) 1970년대말 인문지리학의 철학적 방법론적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으나, 인구분야는 이런 논의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인문주의, 실재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가 인구지리학에서는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하였고, (3) 이와 관련하여 구미선진국에서 수학한 우수한 2·3세대의 학계유입과 이들에 의한 새로운 인문지리학 연구 방법론의 도입, (4) 지역정보 차원에서 거시적인 Macro에서 미시적인 Micro한 분야로의 이행, (5) 지식욕구 상승체제에서 양에서 질로의 변동, 즉 학문관심영역이 인구집단의 수나 규모에서 인간집단의 질이나 특성으로의 전환 등과 상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상당부문의 인구지리학이 사회지리학 내로 전환되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지리학은 향후 사회·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주제 중 특히 「sub(target) group」(노인, 병자, 어린이, 부녀자가구) 및 「이동」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탈도시이동(counter urbanization), 노동이동(labour migration), 귀환(retum migration), 뉘뇌유출(brain drain) 등과 관련된 이동연구가 기대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1) 인구가동에 의해 인구변동이 심하고, (2) 이동해석에 있어 공간과 장소의 설명이 많으며, (3) 이동연구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 조혜중(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사회·인구지리학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주제별 연구성과와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흐름의 대동맥을 짚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특히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지리학의 매우 포괄적인 학문연구방향의 가닥을 잡아준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제공과 함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론자는 사회지리학의 범주 및 인구지리학의 연구방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의 사회지리학에 대한 정의적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여러 언급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즉 “사회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사회적 현상과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연구주제들의 범위를 한정하기보다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대한지리학회, 한국지리학 — 현재 과거 미래 — pp.181) “사회·인구지리학의 전문연구 영역이 다소 모호해지면서, 특히 사회지리학의 경우 또 다시 인문지리학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대한지리학회, pp.194) “사회 인구지리학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이나 기존의 주제 등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예로 도시문화경관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의 영역이라기 보다 새로운 사회지리학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대한지리학회, pp.195)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사회지리학에 대한 다음 두 가지의 대비되는 정의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발표자는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 즉, Bobek과 Hartke를 중심으로 한 Wien-München학

파에서는 사회지리학을 종전의 인문지리학 전반에 작용하는 사회적 힘에 관한 학문으로 보려는 데 반하여 Otremba는 이를 단지 인문지리학 또는 경제지리학 내의 독특한 관점을 갖는 한 분야로 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예경희, 사회지리학, 청주대학교출판부, pp.13) 또한, Jones는 사회적 집단이 그들의 공간이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턴과 그러한 패턴을 창출하고 변화하는데 포함된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Eyles는 부족자원과 불균등 분포의 사회—공간적 산물을 연구하는 것으로, 문제지향적으로 보고 있다.(예경희, pp.35~36) 만일, 전자의 광의적 해석 입장이라면, 인구지리분야에서도 인구가 지표현상을 일으키는 주 행위자이며 인구현상은 그 사회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특정시대의 사회적 소산이기 때문에 모든 인문지리를 포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인구지리는 어디까지나 인구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장소라고 하는 공간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다시말해서 인구현상과 지리적 요인들과의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학문분야의 제한된 성격을 갖는다.

한편, 인구지리학의 연구방향에 관한 토론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각국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적의하게 나아간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구가동과정, 귀환이동, 직종, 인종 및 계층간의 인구가동특성과 이와 관련한 인구문제, 가구의 구성 및 규모 변화와 노인문제 등을 중심으로, 인접과학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추구한다. India의 경우, 인구의 구조와 성장문제, 문맹과 교육, 종교구성과 caste와 같은 인구사회제도문제, 가족계획 등이며, 중국이라면 가족계획 및 소수민족과 관련한 인구사회문제, 지역간 인구가동과 경제정책, 농촌사회 인구변화와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주 관심사로 다룬다.

한국은 생활수준향상, 평균수명증대에 일련하여 주거환경문제, 노인복지문제, Silver산업의 공간분포와 지역성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U-turn migration 등의 인구재분포 문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

일한국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한국과 북한의 인구사회적 특성비교연구 등, 단절된 인구사회개념을 좁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화된 연구기법이 극도로 활용되어 연구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